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7. 24.(수) 06:00 < 7.24.(수) 석간 > 배포 2024. 7. 23.(화)

해저송전선로 확산을 견인하는 자항형 해저케이블 포설선 취항

- 에너지정책실장, 대한전선 자항형 해저케이블 포설선 취항식 참석
- 해상풍력단지, 장거리 해저송전선로 구축 속도 확대에 기여

우리나라 해상풍력단지 구축에 필수설비인 해저케이블 설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국내기업의 자항형* 포설선(PALOS호)이 7.24(수) 아산 국가산단 고대지구에서 선보여진다.

*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선박으로, 기존 국내 해저케이블 포설선은 바지선 형태로 예인선이 있어야 기동 가능

자항형 포설선은 기존 바지선 형태 포설선에 비해 작업속도가 약 4배(3km/일→13km/일)에 달하며, 해상풍력의 보급 확대와 장거리 해저송전선로 구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상풍력의 전 세계적 확대에 따라 해저 케이블 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우리 전력산업계의 해외 진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22년 49억 달러 → 2029년 217억 달러 (출처 : 영국 원자재시장조사업체 CRU)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금일 취항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전력기자재 산업의 성장과 수출 확대를 위해 민관이 함께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호현 실장은 축사를 통해 “세계 해저케이블 시장은 ’29년까지 30조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며, “이 시장을 우리 업계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상풍력 업계, 케이블업계는 물론, 조선업계도 포함하여 케이블 개발·제작, 설치, 포설선 건조·운용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정부 역시 업계와 함께 전략을 고민할 것이며, 서해안 초고압직류송전(HVDC)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트랙레코드 확보 기회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전력정책관 전력계통혁신과	책임자	과 장	최성준 (044-203-3930)
		담당자	주무관	박종호 (044-203-393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